

열린신문

2026 vol. 374

JULY 7월호



 말씀 마주보기

야훼 로이

시편 23편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암송된 시입니다. 이 시가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여섯 절의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여정과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두 단어, “야훼 로이 (Yahweh Roi)”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살지 않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은 특별한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동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밤에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을 경계하며 지켜야 했던 이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위해 기울였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위해 감당하고 계신 분이 라는 것입니다. 이 “야훼 로이”라는 한마디에 그들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시의 첫 구절은 전체 시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시인이 정말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고난과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목자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가장 친숙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더없이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매 순간 동행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순간은 바로 자기 일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인생이 막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다윗이 자신의 직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보호하심,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4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4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가장 큰 자의 비밀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의 중심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조용히 지나가고자 하셨습니다. 31절은 그 이유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은 시간을 십자가 이후를 준비하며 제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31절).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곧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고난 예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막 8:33)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며, 아예 귀를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베드로처럼 질문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묻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32절).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며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병 고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정치적 메시아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민족의 영광을 되찾아 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너무도 강했기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뒤집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들러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토

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길에서 논쟁한 것은, 누가 큰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는 침묵하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후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놓고는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프게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길이 명예와 성공이 가져다주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예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원리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고난 예고 후 예수님께서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35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꿈꾸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낮아짐이며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이 두 가르침은 모두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붙들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치의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자는 살게 되지만, 예수와 복음을 버리고 자기 생명만을 붙들려는 자는 결국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논쟁했던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가르침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

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제자도의 본보기였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흥의 공동체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예고가 바로 앞에 기록된 변화산 아래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유가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며, 그들의 영적 게으름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과 교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다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 예고를 통해 가르치하고자 하신 것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영향력이 없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세상은 이 아이를 주목하지 않지만, 나는 이 아이를 품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강한 자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기독교 공동체가 경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흥의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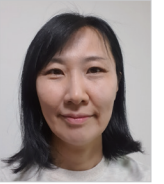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더 많이 헌신하여 연약한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기꺼이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큰 자가 됩니다.

맺음말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와 복음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작은 자를 품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온가족교회오는날 후기

가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꿈꾸며



김수진 장년5교구
ksj9603@hanmail.net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연애 시기에 열린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권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교회에 다니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 셋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자라 중학교에 들어갔고, 서서히 교회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때가 되면 나오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주말마다 약간의 찢림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곤 했습니다. 또한 세 아이의 육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남편의 영혼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세상과 학교에서 지친 마음을 세상의 사상이나 오락으로 위로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게임이나 여러 오락을 즐기면서도 여전히 허무해 하고, 세상의 철학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성탄 공연과 저의 권유로 남편과 아이들이 몇 번씩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구역장님께서 “온가족교회오는날에 모실



가족 있나요?”하고 물으셨는데, 제 마음에는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하니 너무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은 순조롭게 온가족교회오는날 예배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가야 55장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들은 아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따뜻한 만남과 교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아들의 청년부 등록과 적응, 남편의 지속



적인 예배 참석 등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믿는 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머리로만 알던 사랑을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열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취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



 지난 6월 12일(금) 금요기도회 시간에 열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설교,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장학생 대표 인사, 격려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비전을 교회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설교는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전해졌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과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윗의 사명이 오늘 열린교회와 장학생들에게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열린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열린장학회 김기현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장학사역을 이어왔으며,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열린장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교회가 세우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내

일이 됩니다”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계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용호 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린장학회의 첫 사역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제1회 장학생 선발에는 총 71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공정한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총 22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선발 인원은 신학생 중심의 트랙 A 10명, 일반 대학생 및 선교사 자녀 중심의 트랙 B 6명, 교회학교 사역을 섬기는 등불장학생(트랙 C) 6명으로 구성되었다.



장학금은 트랙 A 각 300만 원, 트랙 B 각 100만 원, 트랙 C 각 200만 원으로 총 4,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학회는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모임과 기도, 교제를 통해 장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

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학생 대표로 선발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주원 전도사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과주원 전도사는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신학자이자 교육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공부해 왔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큰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열린교회 장학금은 가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막혀 있던 학업의 길에 새로운 소망을 열어 주었다”며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과 사역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는 격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학생 시절을 회고했다. 그는 20여 년 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장학금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언젠가 자신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열린교회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감격을 전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발되었음을 기억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열린장학회 출범이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의 인재를 세우는 귀한 사역의 출발점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편집부) ☆

매향교회 아웃리치 후기

천국을 경험한 이틀



이선숙 장년1교구
pinksun777@naver.com

저는 2026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화성 매향교회로 생애 첫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웃리치는 전도에 특별한 열정과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처럼 느껴져 부끄럽게도 열린교회에 온 지 10년 만의 첫 아웃리치였습니다.

전도대원 모임에서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녀온 구역 식구가 그곳은 천국 같다고 해서 궁금하기는 했지만 갈 생각은 없었는데 구역장님의 열정적인 권유에 차마 안 가겠다고 하지 못했고, 구역장님께서 이름을 적어 내셔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사명감과 기대를 안고 준비할 때 저는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질 이유가 생기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하나님께선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였고, 저에게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 합니다. 전도하기 싫고 두렵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는 그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처음 가는 저를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같은 구역 식구 4명과 함께하게 하였고, 평소 존경하던 권사님과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두려움을 덜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계신 친정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매향리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마치 다른 모습의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는 안타까움보다 답답함과 분노가 앞섰는데, 그곳에서는 정죄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가 처음이었던 저는 복음을 거절당할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차라리 빈집이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시고 대화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한 어르신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 어르신께서는 갑자기 발에 가서야 한다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의 첫 복음 전도는 끝까지 전하지도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왔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집을 방문해서 “많이 연습했는데 아직 한 분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저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접기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분인데도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게서 나온 마음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초청잔치가 시작되기 전 복음을 들어주셨던 어르신 맥에 또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또 왔어요! 우리 교회 가요!”라고 외쳤습니다. 초청잔치에 초대했지만 거절했기에 큰 기대도 없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어휴, 가져 가!”하시며 나오셨습니다.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벅차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르신은 저녁도 일찍 드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아웃리치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맞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저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 주신 이번 아웃리치의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앞으로도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여량교회 아웃리치 후기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지윤 장년5교구
gacrow0809@naver.com

10여 년 전, 타 교회를 섬기던 시절 여름휴가에 영덕·울진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사역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깊은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나도 가족과 함께 선교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그 소망을 조심스레 현실로 옮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시온이와 함께 강원도 정선의 여량교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 세 식구가 모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아웃리치 길에 나선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짐을 챙기고, 늦을까 봐 거의 뜬눈으로 밤을 보낸 뒤 새벽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여량교회에서 우리는 무더위 속에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계신 집을 방문했고, 감사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험 많은 집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옆에

서 돕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뜻밖에도 제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영리를 전하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과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한 문장씩 입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한 뒤 영접기도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떨리는 사람도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 할아버지께 믿음의 때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여량마을의 스물다섯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있었고, 가족의 반대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함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기도와 친절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임을 떠올리며, 이번 아웃리치가 빛진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남편이 여량교회에 감쪽방문을 해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래 품어 온 작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전도 중 만난 한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현금과 영양제를 건네시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섬기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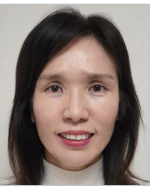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떨고 부족한 사람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억지로 재촉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시간을 아시며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아웃리치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언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실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친히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량교회 아웃리치는 제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뿐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상동교회 아웃리치 후기

순종의 자리에서 본 하나님의 일하심



정미경 장년4교구
mk586sedae@hanmail.net



 저는 열린교회 다닌 지 15년 만인 2023년도에 첫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15년 만에 아웃리치를 처음 간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역장이 된 첫해였는데, 부족함이 많았던 새내기 구역장인 제게 하나님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여 주셨고, 또 구역장이 되었기에 구역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내게 멀게만 느껴졌던 아웃리치를 향하여 첫 도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간 첫 아웃리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았지만 2024년과 2025년 아웃리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리라 다짐했었는데, 막상 아웃리치 준비가 시작되자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저희 4교구는 이제껏 가장 많은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웃리치를 위한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저 한 명쯤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꼭 가야 한다면 가야 할 이유를 제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해 주세요”라는 한 가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웃리치 파송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이번 아웃리치를 내가 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4교구는 경북 예천 상동마을로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제가 속한 전도 조는 아웃리치를 10번 이상 다녀오신 남자 집사님, 남자 청년,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상동교회에서 비교적 가까운 안골 지역을 맡아서 조금은 여유 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만나는 분들마다 ‘글 없는 책’으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전도대원들은 작년에도 안골 지역을 전도했던 터라, 만나는 마을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무척이나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작년

전도할 때 만나지 못했던 분들, 아주 짧게 만나고 스쳐 지나갔던 분들을 올해는 다 만나게 해 주셔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중 가족은 대구에 두고 혼자 상동마을에 오셔서 정착한 지 5년이 된 60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고 음식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교회에 가 본 것 외에는 교회 간 적이 없고 가끔 절에 나가신다고 이야기를 들려 주셨고, 많은 이야기 끝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을 만난 것이 내게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이분은 마트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제껏 일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을 쉬 적이 거의 없었고, 자신이 내성적이라 낯선 사람과 대화를 잘 하지도 않고, 5년 동안 이곳에 혼자 살면서 누구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니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초청잔치에 오시길 권하니, 이 동네에 사는 여동생이 가면 본인도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때마침 여동생이 언니네 집에 방문하셨고, 여동생분께서도 내일 초청잔치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분이 안양에서 전도하러 많은 인원이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오늘 밤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으라고 강권 하셔서 저를 포함한 2명은 여동생분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분은 자신이 안양에서 30년 동안 살며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상동으로 내려온 지 7년이 되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열린교회 전도팀이 이 지역을 다녀간 후부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도 교회에 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대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고, 이제는 정말 교회를 다시 나갈 때가 되었나보다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초청잔치 때 언니분과 동생분 두 분이 나란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 앞에 나란히 앉아 계신 두 자매를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마음의 갈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마음이 실리지 않아 참 힘들었던 26년 아웃리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는 내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인도하신다, 행하신다, 너는 그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알던’ 지식이 아닌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안 된 나를 굳이 전도의 현장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내가 준비돼야 마음이 놓이는 나를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저와 같은 조였던 아웃리치 베테랑 집사님께서 본인도 매년 아웃리치에 참여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쉬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되지만 가기 어려운 수많은 환경을 이기고 순종함으로 그곳에 갔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서 매년 가게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에 상동교회 목사님, 교인들의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작년 열린교회 전도팀의 수고의 열매를 제가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웃리치, 이 단어는 여전히 내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웃리치 갈 때마다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부족하더라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북부교회 아웃리치 후기

복음을 전하며 알게 된 사랑



이수빈 장년7교구
hisoodeen@naver.com



 마지막처럼... 아웃리치에 참여한 계기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작년 아웃리치를 처음 갔을 때는 팀원들을 따라다니며 소극적으로 있었다. 어색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버벅대면 어찌지.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다.

올해 초 외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전국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났다.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한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올해도 당연히 아웃리치를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알리리라 다짐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원래 체력이 약하고 허리도 안 좋아서 “허리 때문에 맨바닥에서 잘 수 없는데” 하는 걱정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럼에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아웃리치 전에 체력을 보강하고 토פר를 챙겨갔다. 그리하여 감사하게도 아웃리치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10가구 정도의 빈집을 보며 시골의 인구 감소가 피부에 와닿았다. 외부인이지만 우리를 반겨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들어주셨다. 초청잔치에 올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도, 영접기도를 안 하겠다고 하시던 분도 모두 마음을 열어주셨다. 초대했던 어르신들을 모시러 갔을 때 미리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을 보자 피곤했던 몸이 사르르 녹았다.

또 허리가 굽으셔서 교회나 초청잔치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집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셨던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아웃리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지금, 그 어르신들의 온기, 웃음소리,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며 가족들이 놀라곤 한다. 사실 제일 놀라는 건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나온 열린교회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아웃리치를 강권하고 싶다. 이것보다 나의 존재와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경험은 없었다. 아웃리치를 나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

'5월 愛, 감사를 담다' 후기

감사저금통이 남긴 선물



최소희 장년2교구
sohee7849@hanmail.net



저는 장년 2교구의 최소희 집사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큰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작은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저금통'을 마련하고 하루를 보내며 기억나는 감사한 일을 글로 적어 모아 두었다가, 한 달 뒤 가족들과 함께 개봉하며 감동을 나누는 소식을 듣고 흥미롭고 유익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집에 와서 집 모양의 감사저금통을 테이프로 붙이고, 식구들이 매일 모이는 식탁 위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저금통에 관하여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좀 부담스러워하더군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감사저금통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어서 매일 감사 쪽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루 이틀 빠뜨리기 시작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셋째 주에는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어 감사저금통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감사 내용이 일상의 평범함에 대한 감사들이었어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상쾌함으로 맡은 일 잘 처리할 수 있었던 하루,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선물 받은 것, 피곤한 몸이 오후에는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었던 것,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저녁에 가족과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었던 것, 직장에서 매출이 최고였던 날, 평안히 집에서 오순도순 가족과 대화했던 것에 대한 감사, 임팩트 있게 "5월 한 달 늘 감사했습니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어 두었다가 다시 읽어 보니 새롭고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감사하려고 애썼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저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감사저금통은 당분간 식탁 위에서 계속 자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

감사가 자라는 우리 집



박은유 유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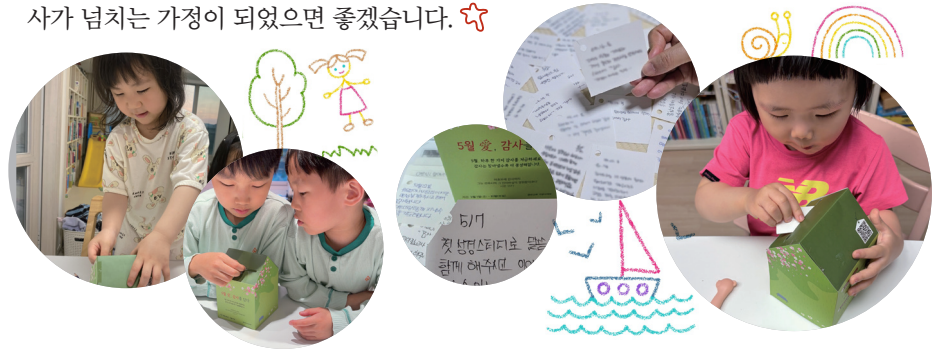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1학년 박은유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매일 말씀 암송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는 말씀도 암송하고 감사한 일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저금통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사 제목은 가정예배 때마다 매일 나누었지만, 글로 적는 감사저금통은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글로 적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니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저금통 캠페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학교에 다니는 것,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저금통 캠페인은 끝났지만 가정예배는 지금도 매일 드리고 있고, 감사 제목도 여전히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정예배 시간에 감사 제목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가족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회소식



강사 : 주종훈 교수(총신신대원 예배학), 고상섭 목사(그사랑교회 담임), 박요한 목사(프렌즈교회 담임)

토요 강단기도 시간 변경

교회는 토요 강단기도 시간을 기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7월 4일(토)부터 적용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학부모 기도회

일시: 7월 4일(토) 오전 11시
장소: 유년부실(세빛교육관 4층)
※ 자녀 돌봄은 유치부실(세빛교육관 3층)에서 운영되며, 4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관련 내용은 7면 하단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캠프

일정: 7월 3일(금)~4일(토)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
주제: 천지창조(창1:1)

청년부수련회

일정: 7월 19일(주일)~21일(화)
장소: 광림수도원
주제: W.I.N. 주의 길을 걷는 자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일정: 7월 23일(목)~25일(토)
장소: 광림수도원
주제: "Arise, Shine!"(사60:1)
강사: 소문수 목사(대구서문교회)

주요사역

- 1일(수) 수요섬김기도 교구별 모임
- 2일(목)~15일(수) 해외신학교 집중수업(온라인 실시간)
- 3일(금)~4일(토) 사랑부 여름캠프
- 5일(주일) 해외아웃리치학교 / 전도회 정기모임
- 6일(월) 안양교도소 자매결연 모임
- 11일(토)~12일(주일) 미취학부 여름성경학교
- 14일(화) 안양교도소 대집회 1
- 17일(금)~19일(주일) 취학부 여름성경학교
- 19일(주일)~21일(화) 청년부 여름수련회
- 21일(화) 안양교도소 봉사원 모임
- 23일(목)~25일(토)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 23일(목)~8월 7일(금) 해외아웃리치
- 25일(토) 부부구역장 간담회
- 28일(화)~8월 25일(화) 화요전도 여름방학
- 29일(수), 8월 5일(수) 수요섬김기도 방학

추천도서

성경을 아는 지식

R. C. 스프라울 (글) · 길성남 (역)/좋은씨앗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입문서! 수십 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온 성경연구 분야의 필독서! 그리스도인이 성경공부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서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 줄 뿐 아니라, 성경해석을 위한 실질적인 규칙과 성경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 등을 가르쳐 준다. 저자는 성경 연구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지침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의 견해를 따라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강조한다. 성경을 자기 편견에 따라 해석하려는 매우 일반화된 경향을 저지하고 균형을 잡아 줄 해석의 규칙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책의 말미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초보자들이나 상급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한다.(교보문고)



새가족

- | | |
|---------|----------|
| ▶▶ 장년 | ▶▶ 청년 |
| 이진휘(89) | 진현정(02) |
| 황희선(95) | 김세린(07) |
| 노미경(64) | 노형준(95) |
| 배은혜(63) | 강지원(96) |
| | 장성은(95) |
| | 김자민(98) |
| | 정다니엘(01) |

교역자 칼럼 | 경주자

부르심의 여정, 청년부를 향하여



오세광 청년부 목양1국
oeh5851@naver.com

저는 이전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지 6년이 되어가던 시점에, 청년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나눴던 그 시간이, 이제는 청년들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방향도 많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벗어나있었습니다. 돌아켜보면 그 시절의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하신 목회자로 키우겠다는 서원기도 덕분에, 고3 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신학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방향하던 저를 붙들어 주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고민은 여전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고민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학년 2학기 때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오며,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목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셨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향했던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이전의 저처럼 방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과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방황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가닿는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을 향한 마음까지 허락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확신이 없는 이 시절, 저 또한 그 시절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신앙적 질문들과 함께 씨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제게 주셨는지 기대하며 청년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열린교회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참된 교회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청년들을 심방하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의 인도 아래 자라온 청소년 시기를 지나, 이제 청년의 시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물려받은 신앙을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오던 예배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고 싶어 자주 묻곤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제자의 마음을 품으며, 선교적 비전을 함께 꿈꾸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른 말씀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곰곰이 생각

무게를 달아야 가치를 안다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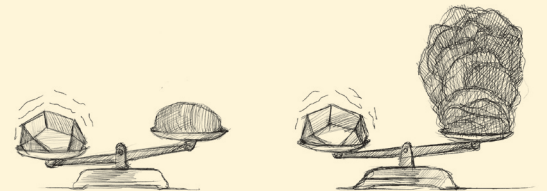
평소에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경험하면 비로소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에 놀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가 10kg이라면
반대편에 9kg을 달면 이기지만,
11kg짜리 고난에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가 1톤이라면
반대편에 9kg을 달아도 이길뿐더러,
900kg짜리 고난에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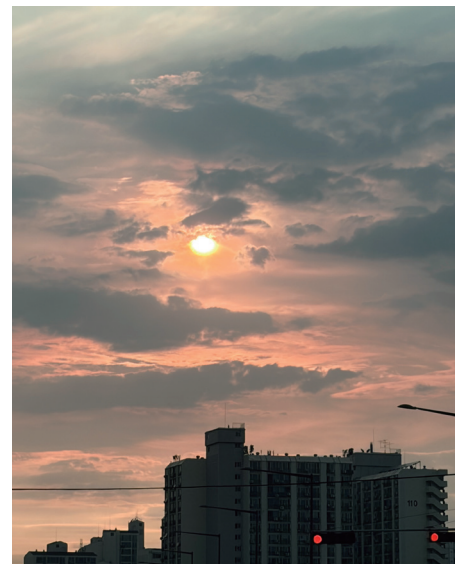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내 앞의 고난이 무거울수록,
고난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복음의 무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8)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23절

2026 여름성경학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Live as a Citize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미취학부

일정: 7월 11일(토)~12일(주일)
장소: 영아부: 영아부실(별관 1층)
유아부(4세): 유아부실(세빛교육관 2층)
(5세): 유년부실(세빛교육관 4층)
유치부: 유치부실(세빛교육관 3층)

취학부

일정: 7월 17일(금)~19일(주일)
장소: 유년부: 유년부실(세빛교육관 4층)
초등부: 예배실(본관 3층)
소년부: 청소년부실(열린교육관 1층)

교회학교 여름 행사 봉사자 모집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게시판과 배너,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랑부: 김하림 목사
영아부: 김진하 전도사
유아부: 한하영 전도사
유치부: 이해선 전도사
유년부: 권세원 전도사
초등부: 박승훈 전도사
소년부: 원준식 전도사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며 자라왔습니다. 대다수의 모태신앙인들이 그러하듯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제 안의 믿음은 그리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삶을 뒤훑는 회심의 순간이나 분명한 결단의 계기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선교지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지만, 흔히 간증에서 듣는 것과 같은 극적인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늘 평탄하고 잘 닦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현실은 굽이치는 비포장도로를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삶의 중심에는 늘 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놀라울 만큼 곧고 정확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학비가 없어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때에도, 꼭 필요한 만큼의 후원이 예상치 못한 곳을 통해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명인지를 조금씩 배워 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동행하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대해 늦게나마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녀 교육과 거주 환경, 직장 등을 고려하여 안양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 많은 분이 한결같이 권해주신 곳이 열린교회였습니다. 이사 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저희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고자 했지만, 열린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는 군더더기 없이 복음과 진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저희 부부는 열린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양으로 이주한 후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아기천사 같은 딸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젊다는 이유로 원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임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을 찾고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점차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딸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는 것부터 배변 활동, 잠드는 것까지 모든 순간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아이를 보며,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 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 앞에서 죄송함과 회개의 마음이 깊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순탄하지 않은 길을 마주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가정을 잘 세워 가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이 찬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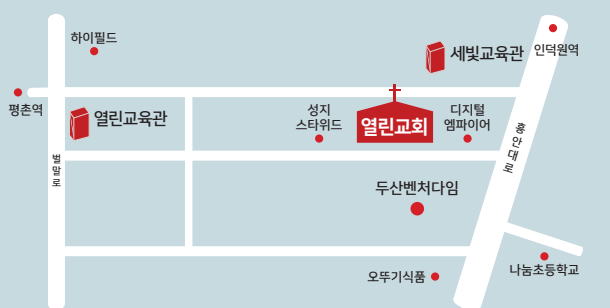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일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일침묵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데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